

“전두환 유족, 피해자에 사죄하고 불의한 재산 환원하라”

5·18 단체들, 전씨 빈소 앞 시위…“기회 저버리면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요구할 것”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울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씨 유족의 공개사과와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 및 국가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 안병하추모사업회, 삼정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등은 25일 오전 전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라”면서 “40년간 차명의로 숨겨온 불의한 재산을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전씨의 유족들이 사죄와 재산 환원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다면 곧바로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전두환 추종자 무리

들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일말의 공식적 사과발언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수구세력을 부추겨 지난 41년간 5·18과 5공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해설의 뒷배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들을 보내서 몇 차례 5·18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노태우와 달리, 5·18을 포함한 5공 피해당사자인 우리는 지난 41년간 그 어디에서도 전두환에게 사과 비슷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사과를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는 전씨 사망일인 지난 23일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생전 여러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전두환의 유족은 지금이라도 (노태우씨 아들인) 노재현에게 배워 5공 피해자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신군부 잔당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5공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의 실세들은 하나같이 대저택 또는 호화 아파트에서 수십년간 부와 권력을 누려온 것을 새삼 확인했다”면서 “전두환 일가는 저마다 막대한 부를 쌓았고, 국민들을 속이며 역사의 정의를 비웃어 왔다. 특히 그들의 숨겨진 재산은 5·18을 왜곡선전하는 자들의 만행에 지속적으로 자금원이 되어 왔다”며 부정축재 환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들은 유족 측에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단체들은 회견에 앞서 연세대 정문 앞에 집결해 장례식장까지 행진했다. 회견 말미에는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관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전두환씨의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제공)

“강제징용 배상” 日 나고야소송지원회 ‘금요행동’ 재개

코로나 감염상황에 중단...대법원 판결 3주년 앞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단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 온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금요행동’이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대법원 판결 3주년을 앞두고 금요행동 재개에 나섰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일본 양심적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26일부터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재개한다.

도쿄 유라쿠초 역 앞에서 거리 선전 활동을 한 뒤 미쓰비시 중공업 노사 앞에서 시민을 상대로 홍보 전단을 배포한다. 금요행동은 2007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

대신 이 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미쓰비

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하늘나라로 떠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해국 시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미력한 힘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동을 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중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월 27일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측이 신청한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민 피해 주는 광주 산정지구 개발 철회하라”

주민들 오늘 시청 앞 집회...“보상 수준 턱없이 낮고 이익은 LH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입니까” 광주 산정지구 주민들이 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본격 행동에 나선다.

정부와 LH가 개발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은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데 광주시가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 불만이다.

산정지구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26일 오전 광주시청을 찾아

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광주시청의 방문 뒤에는 택지개발 주체인 인근 LH까지 거리 행진도 예고했다.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끼여넣기식으로 추진하는 택지 개발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주민들은 LH의 택지개발 보상 수준이 현재 시세의 20~30% 수준으로 턱없이 낮으며, 막무가내로 개발한다며 토지를 빼앗아가면 개발 이

익은 고스란히 LH에 돌아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아파트 보급률이 현재 107%로 향후 10년 이내 130% 이상으로 예측되는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구색맞추기식으로 광주 산정지구 택지를 끼어넣는 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산단 배후부지로 개발한다면 산업단지로부터 15km나 떨어진 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광주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요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 공연

광주교육청, 30일부터 마당극·연극 등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일환으로 이달과 다음 달 지역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한다.

학교의 신청에 따라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또는 연극 ‘오! 금남식당’이 공연된다.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창작탈극, 소리, 춤 등을 통해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

연극 ‘오! 금남식당’은 노래, 춤, 난타 등 퍼포먼스를 통해 1980년 오월 시민들이 나뉘던 주먹밥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나눔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이다.

‘언젠가 봄날에’는 ▲광주수피아여중(30일) ▲설월여고(12월 3일) ▲전남여고(12월 8일) ▲동일미래과학고(12월 10일)에서 공연된다.

‘오! 금남식당’은 ▲용두중(26일) ▲광주중(30일) ▲전대사대부중(12월 3일) ▲일동중(12월 14일) ▲첨단중(12월 16일)에서 공연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을 극화한 문화공연 관람이 청소년들에게 1980년 5월 광주 정신을 쉽게 이해하고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A | AIG | 아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